

EPOCH 모델 기반 한국판 아동용 플로리시 척도 타당화 연구

정 주 리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이 순 아[†]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Kern 등(2016)은 아동·청소년의 플로리시를 측정하기 위해 EPOCH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측정하는 EPOCH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POCH 측정도구를 국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국판 아동용 플로리시 척도로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1036명으로부터 연구자료를 수집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우리나라 초등학교생들에게는 원척도의 EPOCH 5요인을 하위요인으로 하고, 상위 3요인(요인1-낙관, 행복, 요인2-몰입, 끈기, 요인3-연결)으로 구성되는 2차요인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아동용 플로리시 척도의 전체와 각 하위요인은 양호한 신뢰도를 나타냈다. 상관분석 결과, 초등학교생의 플로리시 및 하위요인들은 다면적 생활만족도 및 하위요인들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고, 정신건강 문제 및 하위요인들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 준거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아동의 플로리시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시함으로써 아동의 플로리시에 개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여겨진다.

주요어 : 아동, 초등학교생, 플로리시, EPOCH 모델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순아,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대로 55,
Tel: (062) 520-4201, E-mail: salee2020@gnue.ac.kr

Copyright ©2023, Korean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아동, 성인 구분 없이 한국인의 낮은 삶의 만족도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행복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0점 만점에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2013년 5.7점, 2018년 6.1점, 2021년 6.3점으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주요 국가의 행복지수 평균 점수와 비교하였을 때 여전히 한국인은 59위에 그쳐 낮은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통계청, 2022).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이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도 역시 6.6점으로(OECD 주요국 평균 7.6점) 몇 년째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통계청, 2022).

한국인의 낮은 행복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에서 여러 노력이 시도되고 있지만, 여전히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복 수준에 개입하기 위해 시도되었던 국외의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국외에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학업적 성취뿐만 아니라 긍정 정서 촉진, 회복탄력성 증진, 성격 강점 강화 등을 통해 학생들의 행복 혹은 안녕감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2000년대 이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으며(Kern et al., 2015; Peterson et al., 2005; Seligman et al., 2009), 이를 21세기 학교 교육(twenty-first century educ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Durlak et al., 2011; Govorova et al., 2020; Waters, 2011). 이처럼 학교에서 학생들의 행복 증진을 주요 교육 의제로 부각한 이유는 학생들의 행복 수준을 높임으로써 학업 성취 증진(Yang et al., 2018), 통제력 습득(Howell, 2009), 낮은 결석률(Suldo et al., 2011) 등과 같이 학생들의 현재 삶의 개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Eccles & Roeser, 2011; Hossain et al., 2023).

국외 연구자들 역시 무엇이 학생들의 행복을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Hossain et al., 2023; Scutther et al., 2014). 다양한 견해는 토대를 두고 있는 이론적 배경에 따라 크게 3가지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행복 혹은 안녕감(well-being)에 관한 쾌락적(hedonic) 관점, 자아실현적(eudaimonic) 관점, 쾌락주의적 입장과 자아실현적 입장을 결합한 통합적(integrative) 관점이 이에 속한다. 먼저, 행복에 대한 쾌락주의적 관점은 인식하는 삶의 만족도라는 인지적인 측면과 함께, 감정의 상태를 반영하는 정서적인 측면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Keyes & Annas, 2009). 반면 자아실현적 입장은 자기를 실현하며 내적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으로서 안녕감에 초점을 두고 있다(Deci & Ryan, 2008). 하지만 쾌락적 관점과 자아실현적 관점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안녕감의 다른 차원을 반영하는 만큼, 이를 통합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개진되면서 두 관점을 통합하는 관점이 생겨났다(Burerger et al., 2023; Kern et al., 2015).

통합적 관점을 제시한 대표적인 연구자인 Seligman(2011)은 진정한 행복(authentic happiness)은 일시적으로 느끼는 즐거운 기분을 넘어 개인이 가진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속가능한 행복이라는 의미로 꽃이 만개한 모습을 비유하는 플로리시(flourish)란 개념을 제안하였다. 플로리시는 개인이 현재 경험하는 행복감과 만족감뿐만 아니라 미래 번영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으며, 나아가 개인의 번영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번영, 즉 사회적 번영(Keyes, 2002)까지 반영하는 개념이다. 플로리시를 구성하는 요소들 역시 학자에 따라 상이하기는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은 PERMA 모델로 긍정적 정서

(positive emotion: P), 몰입(engagement: E), 관계(relationship: R), 의미(meaning: M), 성취(achievement: A)를 주요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Seligman, 2011). 구체적으로 긍정적 정서는 쾌락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부정적 정서를 덜 느끼며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느끼는 것을 말한다. 몰입은 어떤 행위에 깊이 빠져들어 몰두하는 것을 뜻하며, 관계는 의미 있는 사람들과 질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 의미는 자아실현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삶의 방향이나 목적으로 작용해 삶이 가치가 있음을 느끼게 한다. 마지막으로 성취는 과업에 집중하고 전념함으로써 얻는 성과물을 나타낸다.

그러나 플로리시는 개인이 속한 발달적 단계, 역할, 삶의 맥락 등에 따라 그 구성요소가 달라질 수 있다(정주리, 2023). 특히 아동과 청소년은 발달하는 존재(developing beings)임을 고려할 때, 아동과 청소년의 플로리시는 이들의 현재 삶에서 경험하는 플로리시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이들의 삶이 나아갈 방향 또한 반영해야 한다(Wolbert et al., 2021). 비유적으로 본다면 아동과 청소년 시기는 활짝 핀 꽃처럼 완성된 의미의 플로리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꽃봉오리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활짝 피어날 가능성 역시 잘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Ben-Arieh 등(2014)은 아동의 안녕감은 현재를 의미하는 ‘well-being’과 플로리싱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well-becoming’이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동·청소년기의 플로리시는 현재 이들이 경험하는 행복 혹은 안녕감을 반영하면서도 플로리싱한 미래의 토대가 되기(Wolbert et al., 2021) 때문에 아동·청소년기라

는 발달적 맥락에 적합한 플로리시 요소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아동·청소년기 현재의 행복, 건강한 발달과 성장뿐만 아니라 훗날 플로리시한 성인기를 보내기 위해 이들의 플로리시 구성요소가 무엇인지를 확인한다면 이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을 비롯하여 여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Gheaus, 2014).

이에 Kern 등(2015)은 플로리시를 측정하기 위해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PERMA 모델이 청소년들에게도 적용가능함을 검토한 후에 청소년 삶의 맥락에 PERMA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일부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들의 연구에서 의미(M)를 측정하는 문항은 관계(R) 요인으로 부하되기도 하였다. 의미(M)의 경우,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해당 개념을 잘 이해하기 어렵거나 아동과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삶의 방향이나 목적이 성인이 인식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에서도 PERMA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용 플로리시 척도를 개발한 차유빈, 임효진(2021)의 연구에서 의미(M)가 별도의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고, 성취(A)와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들은 의미(M)의 본래 개념을 이해하기 보다는 자신이 해야 하는 과업의 목표 정도로 인지하고 있어서 성취(A)와 크게 구별되지 않았다. 국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PERMA 모델을 적용해서 행복플로리시 척도를 개발한 이은혜(2021) 연구에서도 의미(M)와 성취(A)는 삶의 목적이라는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PERMA 구성요소를 아동, 청소년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음을 시사하였다.

Kern 등(2016)은 아동과 청소년의 플로리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PERMA 모델 대신,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현재 플로리시를 반영하면서 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도 플로리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반영한 요소들이 포함된 모델을 새로 제안하였다. 이는 EPOCH 모델로 몰입(engagement: E), 끈기(perseverance: P), 낙관(optimism: O), 연결(connectedness: C), 행복(happiness: H)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EPOCH 모델의 몰입(E)은 PERMA 모델의 몰입(E)과 유사한 개념이고, 연결(C)은 PERMA 모델은 관계(R)와 유사하고, 행복(H)은 PERMA 모델의 긍정적 정서(P)와 유사하여 두 모델에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끈기(P)와 낙관(O)은 PERMA 모델에서는 제시되지 않은 요소로 아동·청소년 시기에는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면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 많은 양의 학습이 일어나는 시기로 때로는 지루함을 견디면서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끈기가 필요함을 나타내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견디어 나갈 필요가 있는 아동·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정주리, 2023). 즉, EPOCH 모델은 PERMA 모델에서 제시하는 현재 성취한 업적(A)이나 거시적으로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는 의미(M)보다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낙관적인 태도와 인내력을 아동과 청소년의 플로리시 요소로 제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별적 요소들을 기반으로 아동·청소년기의 건강한 발달과 함께 성인의 플로리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았다(Kern et al., 2016).

Kern 등(2016)은 10~18세 청소년들을 대상

으로 EPOCH 모델을 기반한 요소들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the EPOCH measure of adolescent well-being)를 개발·타당화하였고, 국내에서는 김도희 등(2022)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판 청소년 플로리시 척도를 타당화하였다. 그러나 김도희 등(2022)의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결과 국내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에서 요인이 다르게 나타남을 발견하였으며, 각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중학생 집단은 원척도의 5요인 위에 상위 2요인(1요인-낙관, 연결, 행복, 2요인-몰입, 끈기)으로 구성된 2차 모형을, 고등학생은 원척도의 5요인 위에 상위 1요인으로 구성된 2차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제안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 간에 전체 플로리시 수준과 플로리시 요소 중 연결, 행복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중학생의 전체 플로리시, 연결, 행복 수준이 고등학생보다 더 높은 것을 발견하여 학교급에 따라 플로리시를 구성하는 요인구조와 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각 대상에 적합한 플로리시 측정도구를 마련하는 것은 해당 요소들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플로리시를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하고, 평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Hossain et al., 2023). 특히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업과 진학에 대한 부담감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학업과 관련된 요소에 대한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할 수 있고 이들의 플로리시를 구성하는 요소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 실제 한 선행연구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학업 스트레스는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고,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초등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오정희, 선혜연,

2013), 통계청의 조사에서는 다년간 고등학생의 스트레스가 중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개발원, 2013). 그뿐만 아니라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은 어휘력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김도희 등(2022)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에 초등학생들을 포함하지 않았기에 이들의 연구에서 타당화된 EPOCH 모형이 국내 초등학생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더불어 차유빈, 임효진(2021)의 연구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PERMA 모델을 초등학생의 플로리시를 측정하는데 적용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발달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Kern 등(2016)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EPOCH 모델이 국내 초등학생들에게도 적용 가능한지를 경험적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아동용 플로리시 척도를 국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초등학생들의 플로리시 구성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함으로써 초등학생들의 플로리시를 증진하는 데 개입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학생들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행복교육으로 다양한 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김미숙 등, 2013; 신지혜, 박미정, 2023).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설계하고, 시행하며, 평가할 수 있는 토대로서 적절한 측정도구가 마련된다면 국내에서 행복교육을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한국판 아동용 플로리시 척도의 구성 타당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한국판 아동용 플로리시 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한국판 아동용 플로리시 척도의 준거 타당도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위해 먼저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다음으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연구에 대해 안내하여 선생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은 온라인 설문으로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연구 시작 전에 연구 참여 도중에라도 자발적 의사에 따라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음을 안내받았다. 총 1036명의 초등학생이 연구에 참여했고, 성별로는 남학생 518명(50%), 여학생 518명(50%), 학년별로는 3학년 95명(9.2%), 4학년 210명(20.3%), 5학년 341명(32.9%), 6학년 390명(37.6%)이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학교 소재 지역은 서울특별시 65명(6.3%), 경기도 25명(2.4%), 광주광역시 448명(43.2%), 전라남도 498명(48.1%)이었다.

측정도구

아동용 플로리시 척도

아동용 플로리시 척도는 Kern 등(2016)이 개발한 EPOCH 검사의 원문과 김도희 등(2022)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용 플로리시 척도 문항을 참고하여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수정,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모두 20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며, 몰입, 끈기, 낙관, 연결, 행복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인마다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0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Kern 등(2016)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플로리시 전체 .92, 몰입 .70, 끈기 .79, 낙관 .76, 연결 .77, 행복 .83으로 나타났다. 국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뢰도는 플로리시 전체 .96, 몰입 .85, 끈기 .88, 낙관 .88, 연결 .92, 행복 .93으로 나타났고, 국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뢰도는 플로리시 전체 .98, 몰입 .93, 끈기 .93, 낙관 .94, 연결 .95, 행복 .96으로 나타났다(김도희 등, 2022).

한국판 아동용 다면적 생활만족도

아동용 플로리시 척도 타당도 검증을 위해 한국판 아동용 다면적 생활만족도 검사를 활용하였다. 이 검사는 Huebner(1994)가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아동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검사(Multidimens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 MSLSS)로 본래 40문항이나, 이정미, 이양희(2005)가 국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를 하는 과정에서 34문항으로 축소하였다. 한국판 아동용 다면적 생활만족도는 6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고 가족(7문항), 친구(8문항), 학교(8문항), 자아(4문항), 환경(6문항)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를 하위요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Comery와 Lee(1992), Tabachnick와 Fidell(2007)이 적절한(fair) 수준으로 제시한 .45를 기준으로 이정미, 이양희(2004)의 연구에서 요인부하량이 낮게 나온(.45 미만) 문항들은 제외하고 가족(5문항, 예시:

“나는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 친구(6문항, 예시: “내 친구들은 나한테 잘해준다”), 학교(5문항, 예시: “나는 학교에 있는 것이 좋다”), 자아(4문항, 예시: “나는 좋은 사람이다”), 환경(5문항, 예시: “나는 우리 동네가 좋다”) 총 2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참고로 이정미(2011)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같은 척도를 타당화 과정을 거쳐 26문항으로 축소하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정미, 이양희(2005)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다면적 생활만족도 전체 .84, 친구 .80, 학교 .82, 가족 .79, 환경 .79, 자아 .7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면적 생활만족도 전체 .91, 친구 .82, 학교 .89, 가족 .85, 환경 .74, 자아 .77로 나타났다.

아동 정신건강 문제

마찬가지로 아동용 플로리시 척도 타당도 검증을 위해 아동 정신건강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Derogatis 등(1976)이 개발한 수정판 간이 정신진단검사지(Checklist-90-Revision: SCL-90-R)를 김광일 등(1984)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장연주(2003)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자기보고식 다차원 증상목록 검사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대민예민성(예시: “나는 쉽게 기분이 상한다”), 우울(예시: “나는 외롭다”), 적대감(예시: “나는 종종 누구를 때리거나 해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불안(예시: “나는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다”) 4개의 요인으로 각각 6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연주(2003)가 보고한 아동 정신건강 문제 전체 척도 신뢰도는 .89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전체 .92, 대민예민성 .71, 우울 .75, 적대감 .84, 불안 .81로 나타났다.

문항 수정 절차

EPOCH 측정도구의 변안 및 수정을 위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교육심리학 전공 교수와 상담심리학 전공 교수가 Kern 등(2016)이 개발한 원 척도의 내용과 김도희 등(2022)이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용 플로리시 척도 문항을 살펴보면서 초등학교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원문을 번역하거나, 청소년용 플로리시 척도 문항을 수정하였다. 이후 초등학교 학년별 담임교사 6명의 검토를 받아 초등학교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 지를 점검하고 더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물두’라는 표현을 ‘집중’이나 ‘푹 빠지다’라는 표현으로 수정하였고, ‘긍정적’을 ‘밝고 희망적’으로, ‘최상’을 ‘좋은’으로, ‘불확실한’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등의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수정된 문항을 가지고 초등학교 1~6학년 9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의 이해도를 점검하였는데,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교사나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서 문항의 내용을 이해하고 답변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 이상만 본 연구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다음의 절차로 이루어졌다. 먼저 SPSS 27.0 프로그램을 이용해 한국판 아동용 플로리시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한 후, AMOS 24.0 프로그램을 가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음으로 SPSS 프로그램으로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문항 내적 합치도 계수를 산출하고,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준거

변인과 함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1036명의 자료를 임의분할하여 515명의 자료를 가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먼저 실시하고, 남은 521명의 자료를 가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다변량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20개 문항들의 첨도와 왜도 절대값을 살펴보았을 때, 모든 문항의 첨도와 왜도 절대값이 2 미만으로 나타나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간주하였다. 또한, 구형성 검증을 위해 KMO (Kaiser-Meyer-Olkin) 측도와 Bartlett 검정 결과, KMO 적합성 지수 .944, Bartlett 검정 $\chi^2(190)=5673.934$, $p=.000$ 로 나타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최대우도법(maximum-likelihood) 방식으로 요인을 추출하였고, 사각회전 방법 중 하나인 oblimin 회전으로 요인회전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유치 1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3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3요인으로 설명되는 변량은 59.79%였다. 요인1이 설명하는 변량은 45.26%, 요인2이 설명하는 분산은 9.12%, 요인3이 설명하는 분산은 5.41%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을 살펴보았을 때, Kern 등(2016)의 원척도에서 낙관과 행복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이 요인1로 수렴되었고, 몰입(5번 문항 제외)과 끈기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은 요인2로 수렴되었으며, 연결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이 요인3으로 수렴되는 것으로 나

표 1. 한국판 아동용 플로리시 척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Kern 등 (2016)	국내 초등학생 표본		
		요인1	요인2	요인3
5. 어떤 활동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즐겁게 한다.	.69	.379	.354	-.020
7. 어떤 일을 하든 완전히 집중한다.	.71	.050	.699	-.030
11. 어떤 활동에 푹 빠져서 다른 일들을 잊어버린 채 열중한다.	.68	.040	.460	.142
12. 무언가를 처음 배울 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게 열중한다.	.66	.133	.593	-.033
2. 시작한 일은 꼭 마무리를 짓는다.	.67	-.151	.670	.099
9. 숙제를 시작하면, 다 끝내기 전까지 멈추지 않는다.	.66	-.004	.584	.001
17. 무언가를 하기로 마음먹으면 해내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	.79	.006	.752	.089
19.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72	.311	.557	-.015
1.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소식을 나눌 사람이 주변에 있다.	.70	-.017	.033	.654
10.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 곁에 있어 줄 사람이 있다.	.78	.004	.040	.808
14. 내 곁에는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다.	.75	.074	-.019	.751
16.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	.64	.089	.011	.539
3.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밝고 희망적으로 생각한다.	.66	.373	.198	.232
13.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65	.532	.344	-.014
15.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다.	.79	.760	.119	.023
18.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일이라도 나는 잘 될 거라고 믿는다.	.75	.450	.408	-.006
4. 나는 행복하다고 느낀다.	.80	.774	-.119	.127
6. 내겐 즐거운 일이 많이 일어난다.	.73	.627	.085	.095
8. 내 삶에 만족한다.	.74	.766	-.104	.122
20. 나는 밝고 즐거운 사람이다.	.74	.604	.045	.144

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Kern 등(2016)의 연구에서 제시한 해당하는 요인에 대한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과 함께 표 1에 제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임의분할한 자료 중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

용하지 않은 521명의 자료를 가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선행연구(김도희 등, 2022; Kern et al. 2016)를 검토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반영한 3요인 모형, 원척도의 요인구조를 반영한 5요인 모형, 3요인과 5요인을 동시에 적용한 쌍요인 모형(bifactor model), 하위요인 5요인

표 2. 한국판 아동용 플로리시 척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구조	χ^2	df	CFA	TLI	RMSEA	AIC
3요인 모형	716.498**	167	.894	.880	.080(.074, .086)	802.498
5요인 모형	561.954**	160	.923	.908	.070(.063, .076)	661.954
쌍요인 모형	350.073**	137	.959	.943	.055(.048, .062)	496.073
2차요인 모형	594.073**	163	.917	.903	.071(.065, .078)	688.073

* $p < .05$, ** $p < .01$

위에 상위요인 3요인을 설정한 2차 요인 모형(second-order factor model)을 설정하여 모형들을 비교분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모형 적합도 지수를 고려했을 때 쌍요인 모형이 다른 모형들에 비해서 더 좋은 적합도 지수를 보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자들은 쌍요인 모형이 다양한 반응 패턴을 더 잘 모형화할 수 있는 적합 경향성(fitting propensity)으로 인해 다른 모형(단일요인 모형, 다요인 모형, 고차요인 모형)에 비해 단순히 더 높은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어(Preacher, 2006) 그로 인해 최적의 모형을 선택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신재은, 이태현, 2017; Murray & Johnson, 2013). 이에 Reise 등(2016)은 단지 적합도 지수가 가장 높다는 이유만 가지고 쌍요인 모형을 선택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보다는 설계된 척도의 요인구조와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의 질에 대해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신재은, 이태현, 2017). 이에 각 문항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살펴보았을 때, 그림 1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쌍요인 모형의 문항들의 표준화된 경로계수가 유의하지 않거나 유의하더라도 경로계수의 수치가 낮거나 경로계수의 부호가 다른 문항과 반대로 나온 문항들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쌍요인 모형의 잠재변인 간 상관도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쌍요인 모형은 비록 적합도 지수는 가장 좋으나 한국판 아동용 플로리시 척도의 차원 구조와 문항의 질을 고려할 때 최종모형으로 채택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안모형으로 3요인 모형보다는 상대적으로 적합도 지수가 높게 나온 5요인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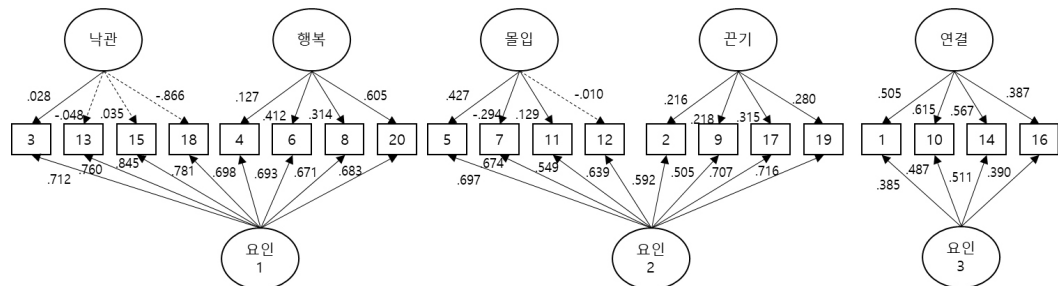


그림 1. 쌍요인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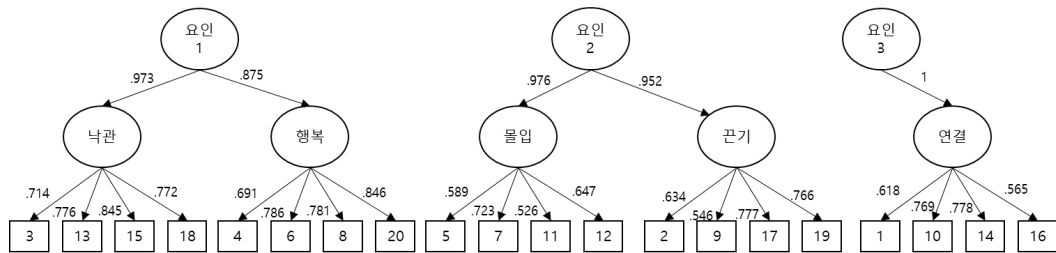


그림 2. 2차요인 모형

이나 2차요인 모형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선행연구를 참고하여(김도희 등, 2022) 탐색적 요인 결과도 함께 반영하면서 원칙도의 요인구조도 고려할 수 있는 2차 요인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그림 2에 2차 요인 모형의 표준화된 경로계수를 제시하였다. 2차요인인 요인1과 요인2 간 상관은 .843, 요인2와 요인3 간 상관은 .800, 요인1과 요인3 간 상관은 .695로 나타났다.

신뢰도 분석

임의분할한 자료를 다시 합친 1036명의 자료를 가지고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한국판 아동용 플로리시 척도 전체 신뢰도는 .932로 나타났고, 반분 신뢰도는 .918로 나타나 한국판 아동용 플로리시 척도가 양호한 신뢰도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위요인 별 신뢰도는 낙관 .860, 행복 .855, 몰입 .747, 끈기 .777, 연결 .795로 나타났고 낙관과 행복의 상위요인인 요인1의 신뢰도는 .91, 몰입과 끈기의 상위요인인 요인2의 신뢰도는 .85로 나타났다.

타당도 분석

마찬가지로 1036명의 자료를 가지고 한국판

아동용 플로리시 척도의 타당도 분석을 위해 다면적 생활만족 척도와 정신건강 문제 척도와 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플로리시는 다면적 생활만족도와 하위요인과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r=.45\sim.77, p<.01$), 정신건강 문제와 하위요인과는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r=-.59\sim-.40, p<.01$).

플로리시 척도의 하위요인인 몰입도 다면적 생활만족도와 그 하위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r=.35\sim.58, p<.01$)을, 정신건강 문제와 하위요인과 유의한 부적 상관($r=-.25\sim-.40, p<.01$)을 나타냈으며, 끈기 역시 다면적 생활만족도와 하위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r=.32\sim.54, p<.01$)을, 정신건강 문제와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r=-.26\sim-.39, p<.01$)을 나타냈다. 낙관도 다면적 생활만족도와 하위요인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r=.43\sim.69, p<.01$), 정신건강 문제와 하위요인과는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r=-.37\sim-.53, p<.01$), 연결 역시 다면적 생활만족도와 하위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r=.35\sim.67, p<.01$), 정신건강 문제와 하위요인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r=-.27\sim-.58, p<.01$)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행복 요인 역시 다면적 생활만족도와 하위요인과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r=.45\sim.73, p<.01$), 정신건강 문제와 그 하위요인에서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

표 3. 연구변인 간 상관계수 및 기술통계값($n=508$)

	1	1-1	1-1-1	1-1-2	1-2	1-2-1	1-2-2	1-3	2	2-1	2-2	2-3	2-4	2-5	3	3-1	3-2	3-3	3-4
1. 플로리시																			
1-1. 요인1	.94**																		
1-1-1. 낙관	.91**	.94**																	
1-1-2. 행복	.85**	.93**	.75**																
1-2. 요인2	.89**	.73**	.76**	.61**															
1-2-1. 몰입	.85**	.73**	.76**	.62**	.92**														
1-2-2. 끈기	.79**	.62**	.64**	.52**	.93**	.71**													
1-3. 요인3 (연결)	.78*	.67**	.61**	.65**	.54**	.52**	.48**												
2. 다면적 생활만족도	.77**	.76**	.69**	.73**	.61**	.58**	.54**	.65**											
2-1. 친구만족	.61**	.58**	.51**	.58**	.44**	.42**	.39**	.67**	.76**										
2-2. 학교만족	.52**	.50**	.46**	.48**	.47**	.43**	.43**	.36**	.73**	.40**									
2-3. 가족만족	.55**	.55**	.48**	.56**	.41**	.39**	.38**	.49**	.72**	.45**	.36**								
2-4. 환경만족	.45**	.47**	.43**	.45**	.36**	.35**	.32**	.35**	.71**	.42**	.40**	.45**							
2-5. 자아만족	.67**	.69**	.65**	.64**	.52**	.52**	.44**	.54**	.74**	.59**	.35**	.45**	.33**						
3. 정신건강 문제	-.55**	-.56**	-.49**	-.56**	-.39**	-.36**	-.37**	-.49**	-.59**	-.56**	-.36**	-.41**	-.41**	-.47**					
3-1. 대인예민	-.42**	-.46**	-.40**	-.45**	-.29**	-.27**	-.27**	-.37**	-.47**	-.45**	-.25**	-.29**	-.34**	-.41**	.88**				
3-2. 우울	-.59**	-.61**	-.53**	-.61**	-.41**	-.40**	-.36**	-.58**	-.64**	-.63**	-.37**	-.43**	-.43**	-.53**	.88**	.73**			
3-3. 적대감	-.50**	-.49**	-.44**	-.48**	-.40**	-.35**	-.39**	-.42**	-.53**	-.47**	-.38**	-.38**	-.36**	-.37**	.86**	.63**	.67**		
3-4. 불안	-.40**	-.42**	-.37**	-.42**	-.28**	-.25**	-.26**	-.27**	-.44**	-.41**	-.24**	-.32**	-.31**	-.36**	.89**	.73**	.69**	.66**	
평균	3.65	3.67	3.37	3.45	3.41	3.38	3.76	4.09	4.71	4.90	4.19	5.12	4.76	4.57	2.42	2.73	2.17	2.29	2.50
표준편차	.78	.93	.88	.88	.81	1.02	.98	.89	.72	.84	1.25	.88	.97	1.01	.75	.82	.78	.93	.91

** $p < .01$

타냈다($r=-.42 \sim -.61, p<.01$). 낙관과 행복의 상위요인인 요인1도 다면적 생활만족도와 하위요인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r=.50 \sim .76, p<.01$), 정신건강 문제와 하위요인과는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r=-.42 \sim -.61, p<.01$), 몰입과 끈기의 상위요인인 요인2 역시 다면적 생활만족도와 하위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r=.36 \sim .61, p<.01$), 정신건강 문제와 하위요인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r=-.28 \sim -.41, p<.01$)을 나타냈다.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Kern 등(2016)의 EPOCH 척도를 한국판 아동용 플로리시 척도로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판 아동용 플로리시 척도의 요인구조와 구성 타당도를 살펴보았을 때 요인구조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함께 반영하여 Kern 등(2016)이 제시한 5요인 구조보다는, 5요인을 하위요인으로 하고 상위 3요인을 구성하는 2차요인 구조가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Kern 등(2015)이 제시한 EPOCH 모델은 성인이 경험하는 플로리시를 모형화한 PERMA 모델(Seligman, 2011)과 차별화하여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과 발달적 맥락을 고려하여 현재 경험하는 플로리시뿐만 아니라 이들이 미래에도 플로리시한 삶을 살 수 있는 역량과 태도를 포함하여 아동·청소년의 플로리시 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 이에 EPOCH 모델에서는 PERMA 모델의 구성요소와 유사한 몰입(E), 연결(C), 행복(H)

요인뿐만 아니라 차별적으로 끈기(P)와 낙관(O) 요인도 포함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EPOCH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한 Kern 등(2016)의 연구와 중국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EPOCH 모델의 타당도를 검증한 Kern 등(2019)의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 없이 확인적 요인분석만을 실시하여 5요인 구조가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낙관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과 행복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한 개의 요인으로 수렴되고, 몰입 요인과 끈기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다른 한 개의 요인으로 수렴되며, 연결 요인이 별도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에게 몰입과 끈기가 뚜렷하게 구분되기보다는 두 요인이 강하게 관련되어 끈기를 바탕으로 몰입하거나, 현재 몰입되는 경험을 통해 (미래) 목표 달성이나 성취를 위해 끈기를 지속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고 여겨진다. 더불어 낙관과 행복 요인 역시 뚜렷하게 구분되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바탕으로 현재 행복감을 느끼거나, 현재 느끼는 행복감이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도 영향을 준다고 여겨진다. 2차 요인구조가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EPOCH 척도를 타당화한 김도희 등(2022)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김도희 등(2022)의 연구에서도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모두 고려할 때, 국내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2차 요인 구조가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학생은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끈기와 몰입이 한 요인으로 수렴되었지만, 연결, 낙관, 행복

요인이 하나의 요인으로 수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은 모든 요인이 하나의 상위요인으로 수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아동과 청소년들의 플로리시는 EPOCH 5요인이 각각 구분되기보다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위요인으로 구성됨을 시사한다고 여겨진다. 한편, 선행연구와 차이점은 중학생의 경우 연결도 낙관, 행복과 한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나 중학생이 관계에서 느끼는 플로리시는 이들이 느끼는 행복감과 미래에 대한 전망과도 관련이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김도희 등, 2022),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들의 연결은 낙관 및 행복과는 별도의 플로리시 요인으로 나타나 초등학생들은 관계에서 느끼는 플로리시와 낙관 및 행복을 통해 느끼는 플로리시를 다르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상위요인들을 따로 명명하는 작업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EPOCH 모델 자체가 플로리시 이론에 기초하여 개발되었고(Kern et al., 2016) 원 척도가 다른 문화권에서도 5요인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EPOCH 모델을 활용하여 국가 간 아동, 청소년의 플로리시를 비교할 때 상위요인인 3요인보다는 하위요인인 5요인(EPOCH)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한국판 아동용 플로리시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문항 신뢰도와 반분신뢰도, 2차요인의 상위요인 및 하위요인 신뢰도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10~18세를 대상으로 한 Kern 등(2016)의 연구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도희 등(2022)의 연구에서도 EPOCH 척도는 양호한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한국판 아동용 플로리시 척도

의 문항들은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일관성 있게 플로리시 전체와 하위요인들을 측정한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아동용 플로리시 척도의 준거 타당도를 살펴보았을 때, 플로리시 전체 점수는 초등학생의 친구만족, 학교만족, 가족만족, 환경만족, 자아만족 하위요인 및 전체 다면적 생활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인예민성, 우울, 적대감, 불안 하위요인 및 전체 정신건강 문제와는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플로리시 전체 점수는 다면적 생활만족도와는 높은 수준의 상관을 나타냈고, 다면적 생활만족도의 하위요인들과는 보통 수준의 상관을 보임으로써 플로리시 척도가 다면적 생활만족도와 유사한 측면은 있지만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된 개념임을 나타냈으며, 정신건강 문제와도 보통의 부적 관련성을 보여 준거 타당도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플로리시의 하위요인 역시 다면적 생활만족도 및 하위요인과 정신건강 문제 및 하위요인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는데 특히 연결은 다른 하위요인과 비교하여 다면적 생활만족도의 친구만족과 높은 상관을, 행복은 학교만족·가족만족·환경만족과 높은 상관을, 낙관은 자아만족과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행복은 다른 플로리시 하위요인보다 정신건강 문제 하위요인과 더 강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Kern 등(2016)은 EPOCH 모델에서 연결 요인은 주변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거나 지지받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과 친밀감을 느끼는지를 나타내는데 국내 초등학생들에게는 특히 이러한 연결은 또래관계 만족과 가장 두드러지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행복 요인

은 전체적인 삶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데(Kern et al., 2016)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행복이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정신건강 및 가족, 학교 및 환경에 대한 만족과 관련이 크다고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나타내는 낙관 요인(Kern et al., 2016)은 국내 초등학생들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자신감을 갖는 자아만족과 관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용 플로리시를 타당화한 김도희 등(2022)의 연구에서도 연결은 친구만족과 가장 강한 관련성을 나타냈고, 행복은 가족만족, 학교만족, 환경만족, 자아만족, 정신건강과 가장 관련이 높았으며, 낙관은 학교만족, 환경만족, 자아만족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김도희 등(2022)의 연구에서 측정한 학업은 플로리시 구성요소 중 끈기와 관련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함께 이러한 결과는 플로리시 하위요인들의 준거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하위요인과 더 밀접한 관련을 갖는 준거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제시한 본 연구결과가 갖는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한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동용 플로리시 척도를 마련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 플로리시는 개인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행복 및 번영을 나타내지만(Seligman, 2011), 개인에게 주어진 발달과업이나 역할 등에서 따라서 플로리시를 구성하는 세부 요소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정주리, 2023). 특히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인 아동과 청소년 시기에는 현재 이들이 경험하

는 행복감과 만족감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플로리시할 수 있도록 미래 번영을 위한 요소들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추상적인 삶의 의미나 현재의 성취를 포함하는 PERMA 모델보다는,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역량과 태도인 끈기와 낙관성을 포함한 EPOCH 모델에 기반한 측정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아동과 청소년들의 플로리시를 측정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이미 김도희 등(2022)의 연구에서 국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당 척도를 타당화하기는 하였지만, 이들의 연구에는 초등학생들이 포함되지 않아 EPOCH 모델이 국내 초등학생들에게도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선행연구에서는 학업 스트레스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오정희, 설희연, 2013),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학업에 대한 부담이 거치고 이는 이들이 느끼는 플로리시 요소의 중요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은 어휘력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김도희 등(2022)의 연구에서 타당화된 척도는 초등학생의 어휘력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항으로 척도를 번안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실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EPOCH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함으로써 국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EPOCH 기반 플로리시 척도의 활용 가능성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함께 실시함으로써 국내 아동들의 플로리시 요인구조의 특징을 발견한 점도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이야

기했듯이 국외연구(Kern et al., 2016; Kern et al., 2019)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이 아닌, 확인적 요인분석만을 실시함으로써 하위요인들 간 더 긴밀하게 묶이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김도희 등(2022)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함께 실시한 결과, 2차 요인구조가 더 적절함을 발견하였다. 이는 학업에 대한 중요성이 큰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발달 맥락상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플로리시는 다양한 요소에서 경험되기보다는 관련이 높은 특정 요인을 중심으로 수렴되고(초등학생 3요인, 중학생 2요인, 고등학생 1요인),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학업과 관련이 높은 상위요소를 중심으로 경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국내 초등학생들에게 행복과 낙관이 밀접한 관련을, 몰입과 끈기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플로리시 척도를 본래 EPOCH 5 요인으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상위요인을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여겨진다. 예를 들어 정신건강과 자아만족 및 가족, 학교, 환경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요인1(행복, 낙관)을 중심으로, 인지적 성취와 관련해서는 요인2(끈기, 몰입)를 중심으로, 또래 관계와 관련해서는 요인3(연결)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플로리시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개발할 때도 하나의 활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를 반영한 중장기 활동을 하도록 할 때, 자신의 흥미를 바탕으로 몰입을 유도하면서 활동 수행 중간 필요한 격려와 지원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

나가서 몰입과 함께 끈기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를 통해 EPOCH 모델을 바탕으로 국내 아동의 플로리시를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한 점도 의미가 있다. Hossain 등(2023)은 각 대상의 특성에 맞는 플로리시 측정도구를 마련하는 것은 해당 대상자의 플로리시에 개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이행·평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학교를 포함한 교육 현장에서 아동의 플로리시를 높이기 위해 이들의 몰입, 끈기, 행복, 낙관, 연결의 요인에 개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구체적으로 초등학생들이 몰입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교육 여건과 방법을 찾고, 어려운 과제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긍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제시하고, 자신과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강점을 발굴하고 강화하도록 조력하며, 긍정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면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플로리시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러한 함의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의 학생들이 다수 연구대상으로 참여했기에 다른 지역의 초등학생들에게도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지를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보고하는 심리내적 변인만을 측정하였기에 플로리시가 공동체의 차원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를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학생 개인의 플로리시뿐만 아니라 학급, 학년, 학교, 지역 등 차원의 플로리시를 같이 고려한다면 개인의 플로리시와 공동체 플로리시 간의 관계도 함께 살펴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더불어 학급의 규모, 학교의 규모 등을 포함한 환경적 변인들도 함께 측정한다면 이러한 맥락적 지표와 학생의 플로리시의 관계도 함께 탐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특점 시점의 플로리시만을 측정하였지만,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통해 플로리시가 안정적인지,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도희, 김희정, 정주리 (2022). 한국판 청소년용 플로리시 척도 타당화 연구: EPOCH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9(3), 187-213.
- 김미숙, 김종민, 이윤선, 권석만, 권영성, 이성희 (2013). 21세기 글로벌 교육개혁 동향 분석 연구(Ⅰ): 행복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신지혜, 박미정 (2023). 중학생의 주관적 웰빙 향상을 위한 가정과 여행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35(2), 91-110.
- 신재은, 이태현 (2017). 쌍요인(Bifactor) 모형을 이용한 심리척도의 측정적 속성 연구방법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6(4), 477-504.
- 오정희, 선혜연 (2013).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 관련 변인 연구: 성별 및 학교급, 지각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3), 1981-1994.
- 이은혜 (2021). 청소년용 행복플로리시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미 (2011). 한국판 청소년용 다면적 학생생활만족척도(K-MSLS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4), 115-133.
- 이정미, 이양희 (2005). 한국판 아동용 다면적 생활만족도 검사(K-MSLSS)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2), 121-137.
- 장연주 (2003). 초등학생의 성희롱 경험과 정신건강 및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주리 (2023). 대상에 따른 플로리시 구성요소 차이. 류지현, 이주미, 정주리, 주현정, 홍은영 (저). 플로리싱한 삶을 위한 교육(pp. 93-113). 서울: 박영스토리.
- 차유빈, 임효진 (2021). 초등학교 고학년용 플로리시 척도의 타당화 연구. 초등상담연구, 20(4), 385-406.
- 통계청 (2022). 한국의 사회동향 2022. <https://kostat.go.kr/menu.es?mid=a9010401010>에서 2023년 8월 24일 인출.
- 통계개발원 (2013). 한국의 사회동향 2013. 통계청
- Ben-Arieh, A., Casas, F., Frønes, I., & Korbin, J. E. (2014). Multifaceted concept of child well-being. In A. Ben-Arieh, F. Casas, I. Frønes, & J. E. Korbin (Eds.), *Handbook of*

- child well-being* (pp. 1-27). Dordrecht: Springer.
- Comrey, A. L., & Lee, H. B. (1992). A first course in factor analysi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Derogatis, L. R. (1975). *The SCL-90-R*. Baltimore: Clinical Psychometric Research.
- Durlak, J. A., Weissberg, R. P., Dymnicki, A. B., Taylor, R. D., & Schellinger, K. B. (2011). The impact of enhancing students'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A meta-analysis of school-based universal interventions. *Child Development*, 82(1), 405-432.
- Eccles, J. S., & Roeser, R. W. (2011). Schools as developmental contexts during adolescence: Schools as developmental contex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1, 225-241.
- Gheaus, A. (2014). The 'intrinsic goods of childhood' and the just society. In A. Bagattini, & C. Macleod (Eds.), *The nature of children's well-being: theory and practice* (pp.35-52). Dordrecht: Springer.
- Govorova, E., Benítez, I., & Muñiz, J. (2020). How schools affect student well-being: A cross-cultural approach in 35 OECD countries. *Frontiers in Psychology*, 11, Article 431.
- Hossain, S., O'Neill, S., & Strnadová, I. (2023). What constitutes student well-being: A scoping review of students' perspectives. *Child Indicators Research*, 16, 447-483.
- Howell, A. J. (2009). Flourishing: Achievement-related correlates of students' well-being.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4(1), 1-13.
- Huebner, E. S. (1994). Prelimina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life satisfaction scale for children. *Psychological Assessment*, 6(2), 149-158.
- Kern, M. L., Benson, L., Steinberg, E. A., & Steinberg, L. (2016). The EPOCH measure of adolescent well-being. *Psychological Assessment*, 28(5), 586-597.
- Kern, M. L., Zeng, G., Hou, H., & Peng, K. (2019). The Chinese version of the EPOCH measure of adolescent well-being: Testing cross-cultural measurement invariance.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37(6), 757-769.
- Kern, M. L., Waters, L. E., Adler, A., & White, M. A. (2015).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measuring well-being in students: Application of the PERMA framework.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0(3), 262-271.
- Keyes, C. L. M. (2002). The mental health continuum: From languishing to flourishing in lif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3(2), 207-222.
- Keyes, C. L. M., & Annas, J. (2009). Feeling good and functioning well: Distinctive concepts in ancient philosophy and contemporary scienc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4(3), 197-201.
- Murray, A. L., & Johnson, W. (2013). The limitations of model fit in comparing the bi-factor versus higher-order models of human cognitive ability structure. *Intelligence*, 41(5), 407-422.
- Peterson, C., Park, N., & Seligman, M. E. P. (2005). Orientations to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The full life versus the empty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6(1), 25-41.
- Preacher, K. J. (2006). Quantifying parsimony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ultivariate*

- Behavioral Research*, 41(3), 227-259.
- Reise, S. P., Kim, D. S., Mansolf, M., & Widaman, K. F. (2016). Is the bifactor model a better model or is it just better at modeling implausible response? Application of iteratively reweighted least squares to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51(6), 818-838.
- Scoutter, A. K., O'Steen, B., & Gilmore, A. (2014). The student well-being model: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development of student well-being indica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ce and Youth*, 19(4), 496-520.
- Seligman, M. E. (2011). *Flourish: A visionary new understanding of happiness and well-being*.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Seligman, M. E., Ernst, R. M., Gillham, J., Reivich, K., & Linkins, M. (2009). Positive education: Positive psychology and classroom interventions. *Oxford Review of Education*, 35(3), 293-311.
- Suldo, S., Thalji, A., & Ferron, J. (2011). Longitudinal academic outcomes predicted by early adolescents' subjective well-being, psychopathology, and mental health status yielded from a dual factor model.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6(1), 17-30.
- Tabachnick, B. G., & Fidell, L. S. (2007).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Pearson Education Inc.
- Waters, L. (2011). A review of school-based positive psychology interventions. *The Australian Educational and Developmental Psychologist*, 28(2), 75-90.
- Wolbert, L., de Ruyter, D., & Schinkel, A. (2021). The flourishing child.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55, 698-709.
- Yang, Q., Tian, L., Huebner, E. S., & Zhu, X. (2018). Relations among academic achievement,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in school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A longitudinal mediation model. *School Psychology Quarterly*, 34(3), 328-340.

원 고 접 수 일 : 2023. 09. 07.
수정원고접수일 : 2023. 12. 15.
최종게재결정일 : 2023. 12. 17.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hildren's Flourish Scale Based on the EPOCH Model

Ju-Ri Joeng¹⁾

SoonAh Lee²⁾

¹⁾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²⁾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ssistant Professor

The EPOCH Model and the EPOCH measure were developed by Kern et al. (2016) to assess children's and adolescents' flourish. This study aimed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the EPOCH measure using a sample of South Korean children. Data were collected from 1,036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grades three to six. The results of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indicated that a second-order factor model with five factors at the first level and three factors at the second level (factor 1: OH, factor 2: EP, factor 3: C) was appropriate for South Korean children. The reliability of both the Korean children's flourish scale and its subfactors were good. The results of the correlation analysis indicated version of the EPOCH measure and its subfactor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students' multidimensional life satisfaction and its subfactors and negatively associated with mental health problems and their subfactors. The Korean version of the EPOCH measure for South Korean children can be used to develop interventions to promote their flourish.

Key words : children, elementary school students, flourish, EPOCH model